

홋카이도-제주특별자치도 사무협의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방문단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우호협력협정서에 조인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협력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 사무협의차 방문했습니다.

먼저 홋카이도 측에서는 올해 홋카이도 명명 150주년 기념 사업이 8월에 있을 예정으로 제주도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각 지역을 소개하는 소개전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주도 측에서는 양 지역의 축제 교류, 공연단 파견 등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의회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DAY



6월 7일 부터 8일에 걸쳐 홋카이도청 1층에서 경상남도 DAY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와는 2006년 6월 7일 교류의향서에 조인하고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호협정을 기념으로 경상남도의 포스터를 전시하고 팸플릿을 배부했습니다.

2018 한국문화강좌



6월 7일 홋카이도청에서 문 국제교류원의 문화 강좌가 있었습니다. 'K-POP으로 보는 젊은 세대 문화'를 테마로 한국의 가수와 곡의 가사 등을 통해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하나카페
이웃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공간에서 펼쳐주는 개성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NHK 라디오 하나 카페 문 교류원 출연 후기

여러분 하나카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NHK 월드 라디오 일본의 '하나카페'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게스트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 3일에는 제가 홋카이도의 초여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현재 들을 수 없지만 그 때 소개했던 제가 경험한 홋카이도의 여름 풍경 사진을 소개합니다.



2018년 6월 3일

▶ 듣기



홋카이도 초여름의 매력은 역시 여름의 꽃! 후라노의 라벤더(위)와 히가시모코토의 꽃잔디(오른쪽)등 다양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샤코탄블루라고 불리는 푸른 바다에서는 카약과 스노쿨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한국의 연극 교류



2007년 '(공익재단)홋카이도 문화재단'과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 지회'가 교류의 향서를 체결하고 그 해 극단 청우(靑羽)의 '발자국 안에서' 를 삿포로에서 공연, 2008년에는 삿포로좌(札幌座)가 서울에서 공연하며 2011년에는 청우와 공동 제작한 '게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을 발표했습니다.

삿포로좌의 사이토 감독과 당시 청우 대표였던 김광보 감독이 동년배로 신진 예술인의 양성을 위해 교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상호 초청공연과 공동 제작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극단 청우 '그게 아닌데'와 이를 각색한 삿포로좌의 '코끼리가 아닌데'를 동시 공연합니다.

~김광보 서울시 극단 단장님(전 극단 청우 대표) 인터뷰~



◎ 홋카이도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

홋카이도를 방문한 건 여러 번입니다. 홋카이도 삿포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2007년 이후 극단청우와 삿포로좌가 교류를 시작하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호 교환 공연을 비롯하여 공동 제작한 작품은 홋카이도 여러 도시로 공연을 다녔습니다. 홋카이도는 저에게 창작의지를 생성 시켜주는 화수분 같은 곳입니다.

◎ 연극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워크숍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극단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게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 극단 '청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극단청우는 1994년 8월1일에 창단 되었고 약 20여명의 단원들이 있으며 연간 한 두 번의 정기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 극단입니다. 해외공연은 주로 일본으로 갔었고 헝가리 공연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 삿포로에서 공연하는 '그게 아닌데'.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의 감상은?

처음 이 작품을 접한 건 2011년 12월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개최한 신작희곡 페스티벌 낭독공연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제가 낭독 공연을 연출하였고 작가와 의기투합해 작품을 수정 보완하여 2012년 7월에 첫 공연을 하였습니다.

타 공연에 비해 연습기간이 짧았지만 극단의 창단멤버들이 합류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 한일연극 교류활동을 하며 느낀 점. 이후 홋카이도 극단과 어떠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연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사람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삿포로좌의 연극친구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함께 작업을 했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또 그 기억을 다른 작품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 삿포로에서 연극 '그게 아닌데'를 관람하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닌데>는 소통이 부재하고 있는 현대인의 딜레마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공연 정보 ✿

※그게 아닌데는 일본어로 '소자 나이노니', 코끼리가 아닌데는 일본어로 '조자 나이노니' 로 비슷한 연극명

극단 청우 '그게 아닌데' (한국어 공연, 일본어 자막)

8월 4일 (토) 18:00

8월 5일 (일) 13:00

예약 : 홋카이도 연극재단 011-520-0710

삿포로좌 '코끼리가 아닌데' (일본어 공연, 한국어 자막)

8월 4일 ~ 12일

(s-e-season.com 홈페이지 참조)

예약 : 홋카이도 연극재단 011-520-0710



7월 25일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주최로 삿포로시교육문화회관에서 홋카이도 150년 기념 공연이 개최됩니다. 홋카이도와 우호 제휴를 맺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남국악관현악단 '휴(休)'가 홋카이도를 방문해 '한국, 음의 향연' 이라는 공연을 펼칩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응모는 7월 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index.do>)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